



2019년 5월 19일(제929호) 부활 제5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계명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고독해 하는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들어주셨고,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그 의미를 사랑 자체이신 당신께 향하라는 명을 부여해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찾은 것은 선악과입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받게 된 벌은 일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갖게 된다는 것!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또 다른 사랑을 갖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되고, 또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되고, 이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되는 사람은 하느님을 갖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인은 아벨을 죽였고,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류를 거쳐 모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느님을 외면하고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외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마다 인류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늘 함께 해왔던 ‘사랑하여라!’라는 계명을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날 다시금 제자들에게 일러 주십니다.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실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신이 죽기 직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데 계속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앞부분입니다.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일까? 또 예수님께서서는 유다를 사랑하신 것일까? 잘 알고 있다시피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였다는 말 자체는 복음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탓하지 않았고 미리 말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와 함께하며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을 찾지 못한 그를 오히려 연민으로 말씀하신 대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해야만 하는 것인가! 오늘은 단순히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기보단 새 계명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상빈(2019년) 신부
회성대(10진비탄)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사도 14,21ㄴ-27

회답송 ◎ 저의 임금인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제 2 독 시 묵시 21,1-5ㄴ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 음 요한 13,31-33 7.34-35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오 미르가리타



성인명: 오 미르가리타 (뜻 Margaret)

신분: 부인, 순교자

활동연도: ?-1868년

오(吳) 마르가리타의 출생지와 천주교에 입교한 사정은 알려져 있지 않고, 뒷날 박 프란치스코와 혼인하여 충청도 청주에서 살았다는 사실만이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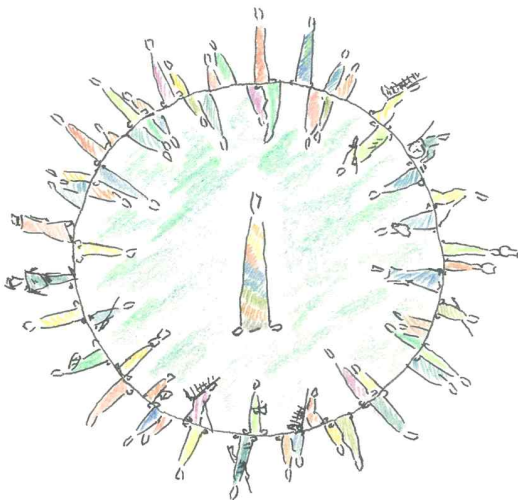
그들 부부는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안전한 곳을 찾아 아들 사형제를 데리고 진천 절골로 이주하여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였다.

박해가 더욱더 거세어지면서 1868년 9월 5일(음력 7월 19일)에 경기도의 죽산 포졸들이 절골로 들이닥쳤다. 오 마르가리타는 어린 자식을 업고 산에 숨어 있다가 가장 먼저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많은 매를 맞았다. 그리고 동정을 살피려고 산에서 내려왔다가 나중에 체포된 남편과 함께 죽산으로 끌려갔다. 오 마르가리타와 박 프란치스코 부부는 이후 어떠한 형벌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켰다. 그런 다음 죽산에서 함께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68년 9월 28일(음력 8월 13일)이었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함께 가는 사람들



높든, 낮든
있든, 없든
강하든, 약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상화이야기

의심하는 토마스



의심하는 토마스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다른 그림들과 달리 어두운 밤이 아니라, 뒤쪽으로 열린 창문 및 왼쪽에 열려 있는 듯한 문으로 들어오는 환한 빛으로 가득 찬 방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린 지난주 그림에서처럼 예수님의 몸은 오상을 제외하곤 희고 깨끗하게 그려져 있고, 토마스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를 만지고 있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뒤편의 제자들은 사도요한과 제자 베드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 또한 놀라움과 경이감에 가득 찬 표정과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요한 프리드리히 오버벡, 1851년 제작
캔버스 위 유화, 154x216cm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이 놀라운 일을 덤덤하게 그려낸 그림인데, 토마스의 붉은 불과 눈빛을 통해 그가 느끼는 떨림을 우리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김은혜(앨리스넷)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5주일: 토성대 석전일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5월 19일(주일)
- 사제 하계 수련회(전역축하식, 사제 성화의 날)
 때·곳: 5월 21일(화)~24일(금),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교구 청소년대회 참가 신청 안내

- 대상 : 교구 내 중1~고2 청소년(총 30명)
- 일시 : 2019년 7월 29일(월)~8월 2일(금)
- 장소 : 베트남 다낭
- 금액 : 130만원(총 170만원, 교구지원 40만원)
- 모집기한 : 2019년 5월 31일(금)
- 문의 : 교육국(02-749-1921, 내선번호 4번)

“모든 이를 심기는 삶” - “네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